

# <인종 자본주의와 우리의 노동>

## 1. 자본주의 시대, 인종과 노동의 상관관계

### 가. 자본과 노동,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유색인

본 강의의 제목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존재한다. 인종·자본주의·노동이다. 인종에 대한 이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로 잘 알려져 있고, 자본주의의 폐해나, 노동 문제는 우리가 별개의 사회문제로서만 익히 들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슈는 개별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서로 깊이 얽혀 있다.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해보자. 스마트폰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애플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며, 이곳엔 실리콘밸리가 있다. 이곳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장소로, 전 세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자 세계의 온갖 자본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세계적 자산가를 떠올려 보면 MS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ICT 기업의 CEO 이름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제조공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제조공장은 중국, 대만,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등지에 분포해 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제품 납기 일정과 단가를 맞추기 위해 높은 노동 강도는 물론, 저임금을 기꺼이 감당한다. 대표적인 아이폰 제조업체인 폭스콘은 「아이폰을 위해 죽다」라는 책까지 발간될 정도로 노동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18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다(안선희, 2021).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애플은 폭스콘의 스마트폰 수익률을 3%로 고정시

켜 제조원가를 절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쇄자살이 발생한 2010년, 애플은 아이폰 판매 수입의 60% 가량을 가져갔으나, 중국 노동자가 가져간 몫은 2%도 채 되지 않았다(안선희, 2021). 삼성전자의 경우엔 어떨까.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는 임산부 노동자의 지나친 초과근무로 논란이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유산이 자주 발생하고, 독성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BBC 뉴스 코리아, 2018).

제조 이전의 원재료 생산 단계를 보자. 휴대폰에는 다양한 광물이 들어간다. 이러한 광물은 아프리카 등지에 위치한 광물 채굴 지역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선경철, 2024). 광물과 관련된 인권 이슈로는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이 대표적인데,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광물을 ‘분쟁광물’이라 지칭하면서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분쟁광물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서 선정한 심각한 인권 문제(Salient Human Rights Issues) 중 하나다. 분쟁광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광물은 3TG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텅스텐(tungsten), 주석(tin), 탄탈륨(tantalum), 금(gold)이다. 이외에도 니켈, 코발트 등 분쟁 광물에 관련된 광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니켈이나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광물이기 때문에 분쟁광물은 ICT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이제 기업은 사용하는 광물이 어디에서 왔고, 그곳에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분쟁광물의 문제는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백인은 거래상으로서 자본을 취득하는 자, 아프리카인은 노동자로서 착취당하며 생산하는 자로 등장한다. 여기서 자본가와 노동자,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수직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권력 구조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산업에 눈을 돌려보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번에는 제조공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의류 산업 역시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 등지에 제조공장이 분포해있는데, 이곳 또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류 산업은 제철이나 건설 산업에 비해서 강도가 낮아 보이지만, 의류 산업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염색과 가공을 위한 화학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려 노동자들은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혁명 당시 방직공장이나 면직물 공장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결핵 등 폐질환에 시달렸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의류 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폭로된 계기는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2013년 발생한 라나플라자 건물 붕괴 참사다. 이 참사는 분명한 인재였다. 이 건물에는 여러 의류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붕괴될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에게 쉬지 않고 일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대피로 등의 안전시설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불법 증축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이곳에서 노동자는 시급 260원의 낮은 임금에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감당하고 있었다.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 상술했듯 이 사고는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의류 산업 제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는 기사는 최근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디올(Dior) 가방의 원가가 8만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가방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에서 중국이나 필리핀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안전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한다(김혜주, 2024).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와 잡화는 주로 북반구에서 소비된다. 소비는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패션쇼와 같은 패션 산업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행사가 해마다 두 번씩 개최된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불가리 등 엄청난 명품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여러 ICT 업계의 자산가들을 뛰어넘고 세계 부자 1위에 올랐다. 의류 산업만큼 자본과 노동의 명암이 뚜렷한 산업도 없다. 그 명암은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를 구분하는 권력 구조와 깊이 얽혀 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심의 생산과 북미와 유럽

중심의 소비 구조를 파악했다. 이렇게 살펴본 세계의 지리적인 위계질서를 Global North, Global South라고 구분한다. 노동의 부담은 보통 Global South에 전가된다. 이 개념은 북반구, 남반구라고 해석하기에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Global North·South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과연 지역의 문제뿐일까?

19세기 중반, ‘골드러시’ 시대에는 3000년 동안 채굴되었던 금보다 많은 양의 금이 이 시기에 채굴되었을 정도로, 금의 생산량이 높았다. 호주, 미국 등지에서 금이 잔뜩 생산되었는데, 이때 금의 채굴을 위해 노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중국인은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당시 중국인을 향한 폭력은 일상적일 정도로 잦았다. 이들을 일컫는 '쿨리'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중국, 인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계 외국인, 이민자들을 일컫는 말로 정규적인 일자리가 없는 단순 노동자를 가리켰다. 중국인들이 대개 광산업, 부두, 건설, 토목 등에 동원되었다면 인도인들은 고무농장, 사탕수수 농장 등 플랜테이션 노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이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사기 계약서에 서명한 뒤 노예제로 돌아가던 농장에 들어갔고, 결국 현지 농장주들에게 이용당하며, 착취당했다(이혜인, 2024). 멕시코로 건너간 쿨리들은 1911년 멕시코 혁명 당시 백인·메스티소 출신 멕시코인들에게 학살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대한제국 시절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은 애니깁으로 불렸는데 이는 당시 이들이 일했던 농장에서 재배한 '에네켄(Henequén)'에서 유래했다. 일본인 브로커들은 인천에서 문맹 농민과 품팔이꾼을 사기 계약으로 멕시코로 보냈다. 멕시코로 간 한인 계약 노동자들은 체류 기간 내내 급여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와 체류비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가는 뱃삯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인 '쿨리' 신화가 생겨났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소위 '동양계'를 향한 인종주의로

이어졌다는 점이다(충남일보, 2024). 즉, 이런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인식을 형성하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인 일, 즉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2020년, 영국의 한 도시에 있는 의류 공장 단지에 대한 뉴스가 송출됐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다. 'Dark Factories'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공장들에서는 흑인과 아시아인 노동자들이 덥고 통풍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간당 6천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며 일해왔다(O'Connor, 2018).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영국의 레스터(Leicester)라는 도시로, 영국 패스트 패션 소매 기업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개발도상국이 아닌 영국에서 버젓이 불법적인 노동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 노동 현장에는 어김없이 유색인종이 있었다.

보통 개발도상국의 저임금을 옹호하는 논리는 그 국가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것이지만, 영국은 사회적 인식이나 물리적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착취를 설명할 수 없다. 즉, 노동 착취의 쟁점은 지역이 아닌 '인종'에 있다. 런던에서 '백인 중심의'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도시에서는 '유색인종이' 열악한 공간에서 '지나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 '다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여러 산업군에서 유색인종을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백인 중심의 위계질서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색인종을 '포함'시키려는 것일 뿐이고, 명분을 위할 뿐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Global North, Global South의 구분이 인종에 결부되어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착취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인종과 자본주의,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 다. 우리나라와는 관련 없는 내용일까?

미국,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례로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게 느껴질 듯하다. 우리나라와는 관련 없는 내용일까? 우리나라도 지방의 공장이나 농장에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사람들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인종과 노동이 결부된 구조가 국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곳곳을 살펴보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격년으로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 Report)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한다. 후자 보고서의 경우 국가별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1등급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2등급으로 강등된 적 있다. 신안 염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문제가 대표적인 이유였다(김지을, 정병호, 2022). 이곳에는 미등록이주자가 많았고,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으며, 자발적인 노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 도봉구에는 양말산업이 발달해있는데, '도봉구 양말산업 종사자 생활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동북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3)'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양말 산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과반수는 미등록이주자다. 계약형태는 정규직이 15%에 그치고,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강제노동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평균 근무시간이 길고, 보수는 적었다. 초과노동에 대한 관리가 없고, 건강 질환에 대한 관리 또한 없었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휴가 제도 또한 없고, 과반수의 노동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상술했던 동남아시아의 노동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종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건설 현장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특히 형틀목공(거푸집 설치 및 해체), 철근공 등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다. 내국인 인력은 고령화되었고 청년층은 유입이 잘 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는데, 외국인 인력의 90%가 미등록이주자이다(임주현, 박나리, 2023).

물류 센터도 마찬가지다. 물류 업무는 업무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아 내

국민이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물류 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고용하는 경우가 암암리에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일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근무가능한 주 2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캠프에서는 방문동거 비자의 카자흐스탄인, 재외동포 비자의 우즈베키스탄인, 카자흐스탄인, 베트남인 다수가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박나은, 2022). 배송 전 분류 작업을 맡는 시설인 쿠팡 캠프의 경우 쿠팡과 계약을 맺은 도급사가 운영하면서 인력 수급과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성행하고 있었다. 보통 쿠팡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극심한 인력 수급 미스매칭으로 대형 업체들도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 노동자는 대체로 관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도급업체는 영세한 기업이 많아서 관리가 어렵다. 현재 수많은 택배·유통 회사들이 업무 위탁을 맡기는 도급사가 운영하는 물류 현장에선 몽골,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외국인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고되고 중한 노동에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노동은 인종화되고 위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넘어선 착취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간이 자본의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채, 도구로써 쓰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보통 어디에서 오는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다. Global North·South의 위계질서가 인종으로 연결된다면, 이 모든 구조의 바탕에는 자본주의가 깔려 있다. 자본주의 속에서 계급-노동-인종이 모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 2. 인종차별과 노동의 상관관계

### 가. 인종차별의 역사

자본주의와 노동은 인종차별이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그 관련성이 시작된

다. 오늘날 우리가 인종차별로 인식하는 현상은 17~18세기 식민시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아프리카인 노예노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Callinicos, 1993/2020). 인종은 노예에 대한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노예제는 특정한 인종을 노예라는 계급으로 고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자본가는 유색인종이 열등한 존재이므로 부러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지위를 유지했다. 이때 인종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인식이 성립되기 시작한다. 이는 유럽인과 원주민, 자유로운 개인과 노예, 백인과 흑인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다.

18세기 후반에는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구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성립했다. “계약만능주의”가 등장하였고, 모든 걸 계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리는 일은 계약을 바탕으로 ‘등가교환’된 것이므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교환의 환상 너머에 존재하는 착취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자본이 자유로운(자발적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 지배의 시스템이다(Fraser, 2022/2023). 이러한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좌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세드릭 로빈슨·낸시 프레이저는 마르크스의 지적이 인종적 구조를 간과했음을 지적했다. 마르크스주의로는 제3세계나, 선진국에 거주하는 유색인종에 대한 다층적인 억압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드릭 로빈슨(Cedric Robinson)은 「흑인 마르크스주의(Black Marxism)」라는 저서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본질적으로 유럽 중심의 시각 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종차별이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 깊이 스며들어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낸시 프레이저는 자본가-노동자의 구분에서 노동자조차 두 가지로 분리됨을 말했다. 첫째는 자유로운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이고, 둘째는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적인 저임금 또는 비임금 노동자다. 낸시 프레이저는 후자의 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의 노동이 가지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이 노동은 인종과 상관성이 높은 또 다른 차별이다(Fraser, 2022/2023). 이처럼 인종차별화된 폭

력이 자본주의 팽창의 배경을 형성했으며, 이 폭력은 자본주의적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었다(Sullivan, 2022). 이는 우리가 티셔츠 한 장을 만 원에 살 때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역사적인 개념인 ‘노예’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현대적인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미등록이주자가 여기에 속한다. 미등록 상태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이고, 임금 삭감, 지나친 초과노동, 휴식 또는 퇴사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강제노동의 형태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노동을 보장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그 전에 생산 단계에서는 인종화된 제3세계 지역에서 착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사람이든 자연이든 착취와 수탈을 통해 가동된다. 자본가는 경제적 이득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주 노동자를 기르고 교육하는 비용은 본국에서 지출되었기에 ‘선진국’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Callinicos, 1993/2020). 자본가는 어떤 면에서도 손해보지 않는다.

#### 나. 착취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는 자본주의적 방식

2010년,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자동차 기업 혼다의 제조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해당 공장뿐만 아니라 이곳에 부품을 공급하던 다른 공급업체들도 동참했고,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공장까지 파업의 물결이 퍼졌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주었다. 재봉틀 공장, 고무 공장, 양조장 등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파업이 확산되었다. 이 파업을 통해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약속받았고, 대부분의 공장에서 30% 가까이 임금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임금의 상승 그리고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긴장 고조는 자본의 회수를 불러일으킨다. 투자자 및 자본가들은 중국을 대체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 주목했다. H&M은 중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생산의 위치를 바꾸었고, 폭스콘은 인도네시아를 주목하였다. 많은 미국 회사들은 이전을 고려하거나 이미 이전을 시작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FDI는 폭증했다(Malm, 2016/2023).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겪은 바 있다. 다시 의류 산업을 보자.

원래 미국 뉴욕에는 가먼트 디스트릭트(Garment District)가 유명했다. 20세기 초반, 가먼트 디스트릭트는 뉴욕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지구였으며, 이곳은 뉴욕 맨해튼의 '5번가(의류 산업에서 상징적인 곳)'를 지탱하는 생산 단지였다. 이곳의 노동자는 대부분 유대인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테너먼트(tenement), 즉 주거용 아파트에서 일했으며, 이들이 일하는 환경은 화장실, 조명, 환기 등이 턱없이 부족한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결국 뉴욕주는 의류 노동자들 사이에서 천연두가 급격히 퍼지고 나서야 테너먼트 시스템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로프트(loft) 공장'이 대안적인 의류 제조 시스템으로 등장했다. 공장은 상업용 건물 내의 창고형 공간을 뜻하며, 적절한 조명과 환기 시설을 갖췄고 작업 공간이 테너먼트 공장보다 훨씬 넓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의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공장의 공간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노동자를 몰아넣는 역효과가 나타났으며,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고 문을 잠가 놓고 일을 시키는 등 착취의 실태는 여전했다.

1960년대가 되자 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이 생산지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때 아웃소싱 대상지는 홍콩, 대만, 방글라데시, 그리고 한국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았고, 이러한 정부의 주도에 따라 국내 섬유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었던 tenement는 그대로 한국으로 옮겨왔다. 이는 미국의 방식을 참고한 결과가 아니고, 생산과정에서 자본을 아끼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똑같이 적용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자본이 쓰이지 않는다. 다수의 공장주가 아동·청소년들을 '시다' 혹은 '공돌이', '공순이'라 부르며 견습생으로 고용했고, 당시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50원을 하루 일당으로 지급했다. 공장은 물밀듯 들어오는 납품을 맞추기 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고, 노

동자들은 창문도 없는 골방에서 하루에 꼬박 14~16시간을 노동에 시달렸다. 당시 봉제공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 적게는 혼자, 많게는 네댓 명이 모여 옷을 만드는 소형 봉제공장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었다. 창신동은 여전히 서울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기로 손꼽히는 곳이며,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곳은 소방차도 진입 불가능해 화재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봉제 산업이 중국·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며 봉제 마을은 급격한 쇠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듯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같은 형태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포착과 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을 재포착하고 이동하는 것이 이득이다.

자본주의 시대 인종과 노동의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했던 과거이자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 계층과 유색인종 사이의 연결점은 무의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공장과 같이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노동자’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특정 노동들은 인종과 결부되며 노동화되고 있다. 우리가 공감할 만한 사례들이 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의 BBC 월드 뉴스의 인터뷰 영상에서 아이들이 방에 난입하자 아내인 한국인 여성이 다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이 여성을 ‘보모’로 오해했다. 한 한국인 웹툰 작가는 러시아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자 ‘보모 아니셨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아시안 여성을 아내나 엄마가 아닌 보모로 보는 것은 아시아 여성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아시아 여성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어떤 노동과 결부되는지 볼 수 있다. 여전히 아시아인에 대한 노동 시장의 불평등한 구조가 존재하고, 이러한 구조는 인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장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야를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이슈로도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3. 인종과 자본주의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확산되는가?

여기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 노동과 자본과 인종의 이야기에 기후변화는 얼핏 뜬금없는 주제일 수 있지만, 이 모든 키워드는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기업은 ESG(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기후변화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의무화했고, 많은 투자기관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scope 1, 2, 3라고 부르는데, scope 1은 기업이 직접 공장의 굴뚝으로 내뿜는 온실가스를 의미하고, scope 2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scope 3은 그 외, 공급망에서 발생하거나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쓰거나 제품 유통 시 발생하는 등등 기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요즘에는 기업들이 공급업체들에서 완제품 단계로 전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cope 3가 99%까지 차지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조 및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급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로 산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 scope 1에서 99% 줄이고, scope 2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고(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제적으로 갚겠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은 없다), scope 3은 1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 말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 줄이겠다는 목표나 다름없다.

그럼 scope 3는 어디에서 나올까? 제조업 국가들에서 나온다. 즉, 노동도, 온실가스 배출도 모두 여기서 이루어진다. 수탈당하는 동시에 책임도 전가되는 구조다. 심지어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이진원, 2022). 극한의 기후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엔 마닐라, 인도네시아, 대만 등이 포함된다. 착취가 심화되는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는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자

본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사회구조는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문제여서 개인의 행동만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불평등한 구조가 너무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무의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도 노동해서 돈을 버는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리는 자본가다. 노동계급의 분열은 백인 노동자에게도 손해다(Callinicos, 1993/2020). 인종차별이 작동하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동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서로 반목하는 것에 급급하느라 효과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인 노동자는 흑인 노동자와 구분되느라 백인 자본가와 함께 묶이는데, 이러한 환상은 백인 노동자의 눈을 가리게 된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맞서는 전략은 백인 노동자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낸시 프레이저가 두 가지 노동 계층을 구분했다면, 이 계층이 서로 반목하느라 자본과 노동의 구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내국인 자본가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의 구분보다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구분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낸시 프레이저가 지적한 것처럼 자유로운 노동은 보이지 않는 수탈이 있기에 가능한데, 이러한 은폐는 자유로운 노동자조차 구조적 문제로 시야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가린다.

변화는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므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부터 강조하고자 한다. ‘Quiet Activism’이라는 개념이 있다.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정의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상과 정치 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질 때, 일상에서도 정치적인 행동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

어질 때, 일상에서 유의미한 담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사회에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지나치게 순진해 보일 수 있지만, 예상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Micro-utopia’라는 개념으로 설명해보겠다. 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 유토피아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서로 연결됨으로써 거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다. 우선 작게 시작하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 늘려가는 것이다. 이는 최근 액티비즘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된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입장에서 지나치게 거대해 무력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심리학회(APA)는 2017년 ‘기후 우울증’을 우울 장애의 일종으로 발표했다(Jang, 2024). 기후 우울증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무력감을 가리키는데, 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정신적 마비(Psychic Numbing)가 언급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을 설명하는데, 이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다. 환경 액티비즘은 윤리에 따른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미래의 사태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개인에게 무력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감정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며, 개인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Lertzman, 2013). 따라서 ‘Micro-utopia’의 관점과 같이 개인의 부담을 낮추되 연결을 통해 변화를 확산해가는 관점이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해보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상에서, 또는 마음속에서라도 자본주의를 배반해보는 것이다. 부, 자본의 확장, 재테크 등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폐허가 그 어떤 나라보다 극심하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물었더니, 17개국 중 오직 우리나라 사람들만 ‘물질적 안녕’을 꼽았다(임해원, 2023). 80%에서 ‘가족’을 꼽은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 매몰된 현재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보고자 한다면, 자본주의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작은 저

항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불매운동과 같은 행동도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집단성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공유한 문제의식을 확장해 서로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집단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불매운동이 그렸고, 세계적으로 여러 보이콧 캠페인이 있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전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싶다. 올해 초 해외에서 처음 책이 발간되었는데(Hildyard, 2024; Robeyns, 2024), Limitarianism이라는 이론이다. 이전에 번역된 적이 없는 단어인데, 임의로 ‘한계주의’ 정도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점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문제도 증대되기 때문에, 지나친 부의 축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지나친’ 부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최상위와 최하위에 대한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Robeyns, 2024).

물론 어디에 그 한계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이 이론가는 그 논의 과정 자체로도 유의미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부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나친 부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조했다면, 점차 심화되어가는 자본주의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짐조차 없다. 우리나라는 유독 부에 매몰되었기에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사회변화는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는 것(bottom-up)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 담론의 형성, 인식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참고자료

김지을, 정병호. (2022, Jan 26). ‘신안 염전노예’ 또 국제사회 이슈로. 광주일보.

김혜주. (2024, Jun 22). "이런 뒤통수가 없네"... 명품 브랜드 디올, 충격적인 원가에 노동 착취 혐의까지? Auto Tribune.

박나은. (2022, Dec 22). 인력난 시달리는 물류센터 ... 쉬쉬하며 무자격

외국인 고용까지. 매일경제.

선경철. (2024, Jun 4).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정책브리핑.

안선희. (2021, Oct 22). 반짝이는 아이폰 뒤 스러져간 노동자들. 한겨레.

BBC 뉴스 코리아. (2018, Apr 2). 베트남 삼성 공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국제단체 '유산 빈번해' 지적.

이진원. (2022, Jun 29). 2050년까지 많은 동남아 도시들, 극심한 기후 변화 영향 불가피 - WEF. ESG경제.

이혜인. (2024, Mar 22). 금광 찾아 바다 건넜지만...낙인 찍히고 배척당한 '중국인 문제'. 경향신문.

임주현, 박나리. (2023, Jun 6).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 KBS 뉴스.

임해원. (2023, Nov 29). [팩트체크]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코리아.

충남일보. (2024, Mar 25). [오늘의 책] 골드러쉬의 이면... 동양계가 겪은 노동자 차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도봉구 양말산업 연구 - 양적연구 및 정책마련을 중심으로.

Balazard, H., Carrel, M., Kaya, S., & Pruenne, A. (2023). Anti-racism mobilization in France: Between quiet activism and awareness raising. *Ethnic and Racial Studies*, 46(4), 771-787.

Callinicos, A. (2020). *Race and Class*. Chaekgalpi.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Fraser, N. (2023). *Cannibal Capitalism*. Booksea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Hildayrd, L. (2024). *Enough: Why It's Time to Abolish the Super-Rich*. Pluto Press

Jang, S. (2024, March 15).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기후 우울증. 정신의학  
신문 .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178>

Malm, A. (2023). Fossil Capital. Secondthesis. (Original work published 2016).

Laing, M. (2024). Sustainability and the fashion media: Micro-Utopia, social dreaming, and hope in the margins. Fashion Theory, 1–24.

Lertzman, R. A. (2013). The myth of apathy: Psychoanalytic explorations of environmental subjectivity. In Sally, W. (Ed). Engaging with Climate Change: Psychoanalytic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New Library of Psychoanalysis 'Beyond the Couch' Series. Routledge.

O'Connor, S. (2018, May 17). Dark factories: labour exploitation in Britain's garment industry. Financial Times.

Robeyns, I. (2024). Limitarianism: The Case Against Extreme Wealth, Astra House.

Sullivan, A. (2022). Britain's 'Dark factoreis': Spectators of radical capitalism today. Fashion Theory, 26(4), 493–508.